오늘부터 닭고기·돼지고기·김치도 원산지 표시

"중국산 배추김치 어떡하나" 당혹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및 표시방법

대상 음식점	대상 품목	표시방법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메뉴판과 게시판(필수), 기타 푯말 등 추가 표시 가능
영업장 면적 100㎡ 미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 중 택1

22일부터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이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소형 음식점(100㎡ 미만)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제도 자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이 싼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음식점들은 원산지 표시에 따른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었다.

원산지 표시 확대시행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농성동 N식육식당. 식당 벽면에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갈비 등이 적힌 메뉴판이 걸려 있었지만 원산지 표시는 전혀 없었다. 반면 쇠고기 전골, 꽃등심, 갈빗살 등에는 '국내산'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식당주인 김모(50)씨는 "원산지 표시제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 같이 소형음식점까지 포함되는지 몰랐다. 쇠고기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반면 100㎡ 이상 중·대형 음식점 대다수는 메뉴판과 벽면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표시대상별로 구분해 적어 놨다. 같은 날 오후 남구 봉선동 S갈비집. 140㎡ 규모의 음식점 내부 메뉴판에는 '돼지갈비'(국내산), '소갈비'(국내산), '배추김치'(국내산), '쌀'(국내산)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S갈비 주인 이모(여·45)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쇠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면서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도 미리 표시를 해 뒀다"며 "문제는 가격이 싼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내놓은 음식점들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단속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식당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분식점 등), 위탁급식소(전문급식업체에 맡겨 운영 중인 급식소), 집단급식소(직영 급식소)가 해당된다.

배추김치는 쌀과 마찬가지로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에 한해 해당된다.

이를 어겼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100㎡ 미만 음식점은 3개월, 33㎡ 이하의 음식점은 6개월 동안 확대시행 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령회사 세워 '대포차' 수백대 유통

광주지검, 30대 구속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1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등록해 준 전모(34)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과 수완동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차리고 브로커로부터 대포차를 등록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차량 249대를 대포차로 둔갑시켜 주고 대가로 한대당 25만~3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전씨는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중고차 매매상사 이름을 바꿔 등록해 수사망을 피해 왔으며, 한 매매상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 대포차만 493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가 이름뿐인 중고차 매매상사 여러 개를 만들어 대포차 영업을 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캐는 한편 대포차 등록을 의뢰한 브로커와 공범들을 뒤쫓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이트 X-mas 올해도 어렵다

광주·전남 구름 조금

올해도 광주·전남지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광주·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날씨를, 성탄절인 25일은 구름 조금 낀 날씨를 보이겠으며 눈이 올 확률은 낮다"고 예보했다.

따라서 광주지역은 1.3㎝의 눈이 내린 2002년 성탄절 이후 6년째 눈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광주지역 기온은 영하 1도~7도. 25일은 영하 2도~6도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한편, 기상청은 "휴일인 21일 밤부터 내린 눈은 영광과 함평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지역에 22일까지 1~5㎝ 내릴 전망이다"고 예보했다.

/김형호기자 kh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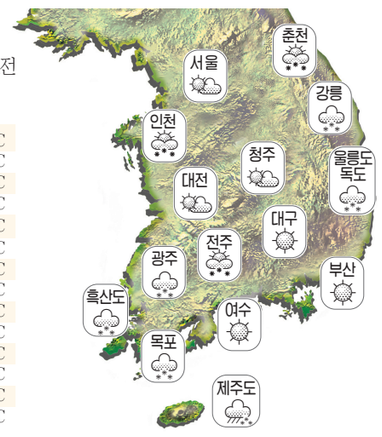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7분 해짐 17시 25분 달뜸 02시 47분 달짐 13시 31분

동(冬)장군 기승!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온 후 오전에 개겠다.

광 주	흐리고 눈	-2/1℃
목 포	흐리고 눈	-2/1℃
여 수	맑음	-2/3℃
완 도	구름 많고 한 때 눈	-1/2℃
구 례	구름 많고 한 때 눈	-3/2℃
해 남	구름 많고 한 때 눈	-2/2℃
장 흥	구름 많고 한 때 눈	-3/2℃
고 흥	맑음	-1/4℃
순 천	구름 많고 한 때 눈	-3/2℃
영 광	흐리고 한 때 눈	-3/0℃
진 도	구름 많고 한 때 눈	-1/3℃
전 주	구름 많고 한 때 눈	-5/-1℃
남 원	구름 많고 한 때 눈	-6/1℃
흑산도	흐리고 눈	-1/1℃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목포	10:24	02:59
먼바다	북서~북	2.0~4.0m		22:19	15:55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여수	05:46	17:28
먼바다	북서~북	2.0~4.0m		11:45	23:4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일)
날 씨						
최저/최고	-4/6	-1/7	-2/5	-3/6	-2/8	-1/9

서울대 정시모집 경쟁률 4.63 대 1

서울대의 2009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4.63대 1로 지난해보다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학과들은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한데 비하여 자연계학과들은 의학계열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18일부터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서울대는 20일 오후 6시 마감 결과 정원 1천409명에 6천517명이 지원해 4.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연합뉴스

"눈썰매 신나요" 추운 날씨에도 겨울의 참맛은 눈썰매를 타는 데 있다. 휴일인 21일 광주시 북구 생룡동 패밀리랜드를 찾은 어린이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대리기사-업체 마찰 심화

광주 400여명 수수료 등 항의 오늘 집회

광주지역 대리기사들과 대형 대리운전업체 간의 마찰이 일촉즉발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경제난을 겪고 있는 대리기사들은 최근 자생적 협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광주 대리기사협회'(이하 광주대기협)는 22일 오후 광주시 북구 한 대리운전업체 앞에서 과도한 수수료와 벌금제도, 보험료 대리기사에 떠넘기기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대기협 소속 대리기사 400여명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경고성 파업을 벌였었다.

이들은 "소규모 대리운전 업체들로 구성된 속칭 '연합사'가 서비스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대리기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들은 기사들이 낸 보험료까지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합사들은 기사들에게 대리운전 1회당 중계수수료 2천500원~3천원을 받고 있고, 고객의 전화를 중복검색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대리기사 1인당 하루 2천원에서 1만원 가량의 부당한 벌금(1회 검색당 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연합사들이 계약서에 '기사들이 낸 보험료 사용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고, 이를 사무실 운영비로 전용하거나, 심지어는 보험가입 자체를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합사들은 대리기사와 업체는 특수고용관계로 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리기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0월 말 출범한 광주대기협은 당시 10여명의 회원만이 가입의사를 밝혔지만, 현재는 400여명으로 늘었다. 광주대기협 김모(여·50) 회장은 "부당한 월권을 휘두르는 연합사들과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 757편 접수 심사

지난 15일 마감(당일 우편 소인 유효)된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심사〈사진〉가 지난 19일 본사 1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신춘문예에는 시 660편, 소설 51편, 동화 46편 등 세 부문에 걸쳐 모두 75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에는 2008 베이징 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부터 주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비문인들이 도전, 반세기를 넘긴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심사는 소설 부문에 은희경·구효서씨, 시 부문에 안도현·이문재씨, 동화 부문에 황선미씨가 맡았다. 당선작은 2009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되며 신춘문예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은 2009년 1월 중순 열린다. 상금은 소설 300만원, 시·동화 각각 100만원.

/이은미기자 emlee@
/사진=고경석기자 ksgo@